

2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04.67 (+1.61)	694.39 (+2.3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638 (-0.103)	1396.75 (-0.25)

기준금리 연 3%로 0.25%p ↓ 내년 성장률 전망 1.9%로 하향

한은, 금융위기 후 처음 2연속 내리 성장둔화 우려 속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p) 하향했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

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환율 부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때에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 붙은 상태다.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가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한 0.1%를 기록했다. 저성장

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0.2%p 낮췄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을 것이라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은 1.9%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2.5%보다 낮은 2.3%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2024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심사에서 이정희 메트로신문 대기자(왼쪽부터),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교수,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이 심사평을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등 7곳 선정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등이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休&休)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30여곳의 아파트 가운데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이 정해졌다.

<관련기사 12·13면>

- ▲조경혁신대상 '복수원 자이렉스비아(GS건설)
- ▲커뮤니티대상 '제일풍경채옥정(제일건설)
- ▲테마조경대상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DL이앤씨)
- ▲스마트환경대상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럴(대우건설)
- ▲미래가치대상 '쌍용더플래티넘 장항(쌍용건설)
- ▲친환경단지대상 '더샵돈촌포레(포스코이앤씨)
- ▲브랜드혁신대상 'SK

뷰학익(SK에코플랜트)'이 각각 주인공으로 뽑혔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수상작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이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서구원 심사위원장은 “최근 입주한 단지를 중심으로 산책로에 큰 나무를 조성해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텃밭을 만들어 가꾸는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조경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iw13@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최종 승인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초읽기 진에어 등 LCC 통합 급물살 탈 듯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초대형 항공사인 '메가 캐리어' 탄생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11월 2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북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

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예

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서 4년간 이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를 맞았다.

항공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의 통합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30년 넘게 다른 노선을 걸어온 조직이 결합한 만큼 조직간 갈등요소나 마일리지 통합 등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여의도 12배 면적' 산지 규제 풀다

韓 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농촌·산촌, 인구 유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또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

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 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새만금 특혜 의혹'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진 뉴시스
- ▲ 김문수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 적극 도울 것”

- ▲ 최상목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 통과 유감…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 ▲ '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의 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가시화… 일·가정 양립정책 등 영향” /사진 뉴시스

출근길 아수라장... 공장 중단, 시설물 무너져 사상자 발생

수도권 곳곳 교통통제, 차량 멈춰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인산인해' 골프연습장·축사 등 붕괴 잇따라 구조물·나무에 깔려 부상·사망 گیا 공장 '중단', LG전자 '축소'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남측순환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 한 후 폭설로 인해 부러진 나무 등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독자제공

그야말로 출근길은 아수라장이었다. 117년 만에 11월 최고치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는 미끄러진 차들이 엉켜 꼼짝달싹 못 했고, 버스, 지하철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쌓인 눈에 전신주와 전선이 무너져 내려 주택 곳곳은 정전이 됐고, 자동차 생산라인 등 공장이 멈춰 섰다. 안타깝게도 60대 노인은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인간이 벗어낸 기후변화는 폭설로서 인류의 존립에 또 다시 경고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들 연속 폭설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미처 월동 장구를 챙기지 못한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한 채 비상등을 켜 채 멈춰선 차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교통 혼잡을 피해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선로에 쌓인 눈이나 나뭇가지 등을 치우느라 열차 출고가 늦어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20분 가량 지연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겼다. 항공기의 경우 국제선, 국내선 포함 결항은 111편, 지연은 31편이 발생했다. 제주 바다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

면서 배편 대부분이 끊겼다.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도 컸다.

경기 평택 골프연습장에서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성남의 골프장에서도 같은 붕괴 사고로 인근 건물에 정전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는 60대 노인이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쌓인 눈에 지붕 붕괴 사고도 잇따랐

다. 이날 오전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한 우사에서 70대 노인이 무너진 지붕에 깔렸다. 그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젓소 농장 축사도 붕괴돼 젓소 36마리가 자재더미에 깔렸다.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의 한 축사 지붕도 무너지면서 젓소 3마리가 폐사했다.

아울러,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창고 천장이 무너져내려 직원 1명이 부

상당했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폭탄에 공장도 생산라인도 가동을 멈췄다.

K8, 쏘렌토 등을 생산하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 1, 2공장은 이날 주간 근무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1공장에 눈이 쌓여 지붕 처짐 현상이 생겼다. 2공장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 작업으로 가동이 멈췄다.

LG전자는 평택 디지털파크 전장 부품 생산라인의 운영을 일부 축소했다. 폭설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아파트 2곳에 정전이 돼 12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서 새벽에는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 또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공덕동·성산동 일대 주택 750호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날 정전은 폭설로 나무가 전신주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착륙 후 계류장까지 5시간30분... 비상대책 부재 드러나

Q 르포 인천공항공사 폭설 대응

세계적인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낯이 폭설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도 계류장(주 기장)까지 진입하는데만 활주로에서 5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관제탑 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행기와 주기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수 십미터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까지 호소하는 등 자칫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될 뻔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안전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KE442편. 이 비행기에는 250여명이 탑승했다.

비행기는 당초보다 2시간이 늦은 오후 2시께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을 출발했다. 전날 우리나라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연착이 되면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KE442는 오후 8시50분께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시차는 2시간이다. 문제는 착륙 직후 발생했다.

활주로를 달리고 있던 비행기에서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현재 다른 비행기가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후 안내방송은 "(계류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무한 반복했다. 승무



27일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 KE442편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5시간30분 가량을 대기한 후 계류장에 도착했다. /김승호 기자

베트남 공항 출국부터 2시간 지연 인천 착륙 후 승객 250여명 발 묶여 "기다려 달라" 말만, 상황설명 없어 승객들, 원성... 일부 막말·욕설도 기내 산소부족에 '호흡곤란' 호소 "공항·항공 서비스 국제적인 망신"

원에 따르면 기내 방송은 규정상 15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다. 물론 그 사이 비행기는 전혀 미동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을 넘어섰다.

비행기에 갇힌 지 3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원성이 높아졌다.

일부는 승무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승무원들은 "기장이 관제탑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시 1시간이 지났다. 이쪽 저쪽에서 욕설도 들렸다. 한 승객은 "기다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느냐. 버스 등을 통해 진작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KE442편 객실 사무장 L모씨는 "버스편 등에 대해 공항측에 전달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장은 4시간이 훌쩍 지나야 방송을 했다. 기장 역시 "기다려달라"는 짧은 안내가 전부였다.

지칠대로 지친 일부 승객은 112로, 119로 저마다 신고를 했다. 한 승객은 인천공항경찰단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항공기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밖에 돌아온 것이 없었다.

비행기가 오래 머물면서 전원도 자주 차단됐다. 이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겪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커졌다.

한 승무원은 "저희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우리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승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을 즈음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계류장에

달았다. 28일 새벽 2시20분께다.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가 계류장까지 몇 십미터를 가는데 무려 5시간30분이 걸린 것이다. 이날 하와이에서 출발한 일부 노선은 꼬박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엔 KE442편이 닿은 235번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승무원이 공항공사측과 전화를 하고서야 문이 열렸다. 비행기에서 힘들게 내린 승객들은 이때문에 20여분이 지나서야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렵게 마련한 계류장마저 승객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다른 탑승객은 "이게 인천공항과 대한항공의 서비스냐. 국제적으로 아주 개망신"이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끝난게 아니었다. 짐 찾은 곳은 그야말로 사람과 짐이 서로 엉켜 아수라장이었다.

KE442편에서 내린 짐을 찾은 곳은 30분이 넘도록 전광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250명이 넘는 승객들은 자신의 짐을 찾기위해 이리 저리 방황했다. 일부 LCC 항공사에서 관제자가 나와 구두로 짐 찾은 곳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보이질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에 '고객'은 없었다.

한편 2022년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를 받았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엔 A로 두 단계 상승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전 세계 공항을 선도해나가는 초일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반도체법 제정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까지 할 수 있게 되어야 안 되겠냐"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따블 따따블 옛말... 새내기주 85% 상장 첫날 '마이너스'

IPO 시장 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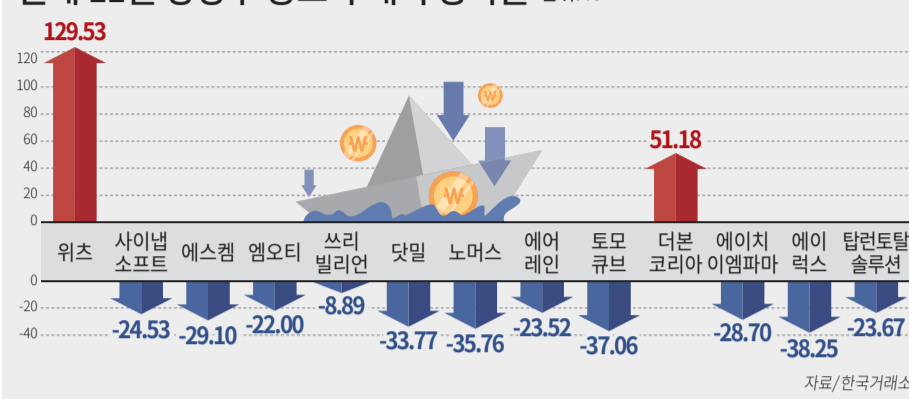
공모가 거품 논란에 투자자 외면
케이뱅크 등 상장 철회도 잇따라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 시장도 한파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상장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공모주들이 최근 들어 상장 첫날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위적 '공모가 거품'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상장한 더본코리아(51.18%), 위츠(129.53%) 등 2개 종목에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또는 기준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이 잇따라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에이릭스는 코스닥 시장 데뷔 날

올해 11월 상장주 공모가 대비 등락률 단위:%



38.25%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토토큐브(-37.06%), 노머스(-35.76%), 닷밀(-33.77%) 등도 크게 떨어졌다. 이밖에도 상장 당시 인기를 끌었던 더본코리아마저도 코스피시장 데뷔 첫날 급등한 이후 27%가량 하락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 혹은 하단 미만으로 결정한 기업들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스켄과 엠오티

는 공모가를 희망 밴드 하단에도 못 미치는 1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상장일 각각 29.10%, 22.00%의 큰 낙폭을 기록했다. 쓰리빌리언 역시 밴드 하단인 4500원으로 공모가를 설정했으나 상장일 주가는 8.89% 떨어졌다.

이처럼 IPO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상장을 철회한 회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 9월까지 상장 철회 기업이 전무했으나, 지난달부터 케이뱅크를 비롯해

동방메디칼, 미트박스글로벌 등 21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다.

IPO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IPO 물량 과잉으로 인해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발생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국내 IPO 시장의 수요는 더욱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IPO 기업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어,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단기간에 해소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IPO 시장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며 "과거 공모주에 대한 초기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렸으나, 현재 공모가가 이미 너무 높게 시작되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묻지마 베팅에, 공모가 부풀리기... 신뢰도 '바닥'

시장 왜곡과 경쟁 과열

최근 증권사들의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기관들의 묻지마식 초과 주문으로 인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공모가 산정의 부정확성과 불합리한 수요 예측 방식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PO 시장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방식의 도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관사 공모가 부풀리기에 투자자 신뢰 추락

지난해 파두 사태부터 주관사의 공모가 부풀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주관사들이 수수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업 가치를 부풀려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공모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공모가 고평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초일가점제도, 공모가 고평가 부추겨 전문가들, 해결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실제로 지난 10월 24일 씨메스를 시작으로, 최근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모가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 2만~2만 4000원) 상단을 약 25% 초과한 3만원으로 상장한 씨메스는 첫 거래일에 주가가 2만3100원으로 2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탑린토탈솔루션(1만 8000원), 에이치이엠파마(2만3000원), 토토큐브(1만6000원) 등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된 기업들 역시 상장일 큰폭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이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실적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해당 기업들이 안정성과 성장성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기업공개(IPO) 시장 이미지'.

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주관 맡은 에이릭스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릭스는 본업인 로봇·드론 제조업체 대신, 공공기관 발주와 학원사업 등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1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주관사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한데다 비교 기업으로 미래 성장성을 가진 로봇 기업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에이릭스의 상장 첫날 주가는 38.25% 급락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공모가 부풀리기 등은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일가점제도의 부작용... 묻지마 베팅과 공모가 부풀리기

공모주 배정을 위한 초일가점제도 역시 공모가 뺨치기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모주 배정에서 수요예측 첫날 주문에 가

점을 부여하는 초일가점제도는 본래 수요예측 마지막 날로 주문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시장 반응을 살피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수요예측 첫날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묻지마 베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나왔다. 여기에 상장일 가격 상승 제한폭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공모가와 대비해 상장 첫날의 주가가 400%까지 상승 가능해져 초일가점과 단기 수익을 노린 전략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단타'를 노린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초일가점이 공모가 부풀리기에 동원되는 경우는 중소형주 수요예측에서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관들은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를 것으로 생각한 중소형 종목이 있으면, 공모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수요예측 첫날부터 밴드 상단보다 높은 가격을 써 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초일가점 도입 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의무보유확약은 일정 기간 이상 주

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장 이후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초일가점이 생기기 이전에 기관이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방법은 의무보유확약 조건이었는데, 초일가점이 생기면서 굳이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아도 물량을 많이 챙길 수 있게 되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에이릭스는 희망 공모가 상단은 1만3500원이었는데, 실제 공모가는 1만 6000원에 정해졌음에도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0.36%에 불과했다. 토토큐브 역시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1만6000원이었는데도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0.14% 그쳤다.

한투, 공모가 부풀리기 의혹 신뢰 상실 에이릭스, 논란 속 상장 첫날 38% 급락 기관, 공모가 상단 초과 주문 시장 왜곡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모주 배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일가점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물량 확보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기관들이 공정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IPO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시초가가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됐을 때 이러한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예측 기간을 5일로 늘리고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요 예측 첫날 가중치가 높아, 많은 기관이 기업설명(IR)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첫날 높은 가격을 써내며 과도한 물량을 확보하려 한다. 이로 인해 충분한 분석 없이 공모가 상단을 넘는 가격으로 써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퇴직연금의 강자 탄탄한 신한은행!

“안정적인
퇴직연금은 어디?”

“탄탄한
신한은행!”



***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은행업권 1위**

-202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퇴직연금
고객센터

퇴직연금 제도 상담
1577-4114

자산관리 상담
1544-3682

개인형 IRP 고객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 IRP로 '모아! More 이득'
1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이 있는 IRP 이벤트 시행중



*이벤트 기간: 2024.10.16~2024.12.13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 Bank에서 확인하세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를
자금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에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21%~연 0.45%/DC의 수수료는 후취 연 0.4%(가입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고객센터(1577-411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개별 MMS가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 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 7. 30 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5057-1호 (2024. 10. 25 ~ 2025. 10. 24)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243호 (2024. 10. 25 ~ 2025. 10. 24)

‘與 추천 제외’ 상설특검·국회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野, 특검후보추천위 국회 몫 차지 민주당 2명, 제 3정당 각 1명씩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후 바로 시행 법률안 2개는 거부권 행사 전망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 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 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 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 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 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전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 모자료센터 설치로 인력확보 도와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kg 미만 저체중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김준영(왼쪽 두번째), 사공혜란(왼쪽 세번째) 부부의 다섯쌍둥이 중 막내인 김새봄 아기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료 제공하는

중앙중증모자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신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신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수석은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STO 제도, 늦지 않게 내놓아야”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 “찬반 단계 지나… 현실의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8일 STO(토근증권발행·부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 “이를 허용하나 마느냐의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찬반의 문제 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 등에서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STO 도입을 착실하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보호안을 담은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기존 (제조업) 강국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런 일이지만 그만큼 만든 음식을 잘 팔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금융이고 오늘 이야기 하는 STO도 발전 방향 중에 하나란 의미로 토론회가 열렸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

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규제 차원으로 너무 발목잡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좋은 방향을 찾으려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인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위 소속인 김 의원은 ‘STO 제도 화폐까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STO 시장에서 법제화 미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이번 기회로 법제가 정비될 경우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다. /박태홍 기자

李, ‘尹 임기단축’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이명박 정부)

李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것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의 정치,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 변호사와 오찬하기 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연 변호사는 조선일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윤 대통령이 현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만 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관심이 없다”라며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정권을 불문하고 말했고, 틀에서 벗어나면 소신에 입각해서 발언해 왔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오늘은 뭐 입지?

점심 메뉴는?

회의 준비는 했나?

노후 계획까지..?

고민도 할 일도 많은 당신을 위해
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기업을 아는 만큼 직장인도 잘 아는
IBK기업은행이니까

쉽게 시작하는 IBK IRP



직장인을 잘 아는 기업은행의 IRP!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국책은행의
안정적인 연금운용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한 국책은행

디지털 테크를 활용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

시장 상황과 고객 성향에 맞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추천·관리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285호(2024.10.25) 유효기간(2025.10.23)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개인형 I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인형 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우리금융 現회장 재임시에도 유사 불법대출 확인”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 불법·비리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온정적 문화, 내부고발 억제 요인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우리금융 회장(임종룡)과 행장(조병규)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정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권에선 현 경영진의 책임을 다시 압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병규 행장은 최근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만남 이 원장은 조직 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온정적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이 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

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 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온정적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을 억제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 당국에 누락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사·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

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밟는 은행들에게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미,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금리는 고공행진

금리인하 한 달... 주담대 금리는 ↑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 금리 올려 美도 금리 내렸지만 주담대는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지난 9월부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한 미국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4.05%로 한 달 전(3.74%)과 비교해 0.31%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9월 0.44%p 이후 가장 크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위해 자금을 빌리면서 내는 금리를 말하고,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손실률, 은행 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 **韓, 가계부채 관리... 은행 가산금리 상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31%p 오른 4.04%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는 ▲8월 3.22% ▲9월 3.22%로 동일했다가 ▲10월 3.28%로 0.06% 상승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이번엔 0.31%p 상승했는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06%p(9월 3.22%→10월 3.28%) 올랐다”며 “그 차이 만큼이 대략적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폭”이라고 말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4%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0.03%p 내린 3.37%로 집계됐다. 지표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美, 물가상승 가능성에 시장금리도 주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6.9%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9월 18일 6.15% 이후 0.75%p 올랐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0.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0.25%p를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는 0.75%p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는 0.

75%p 올랐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성장했다. 2분기(3%)보다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1분기(1.6%)에 비하면 상당폭 올랐다. 비농업부문 고용건수는 10월 1만2000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4만2000건 줄었지만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 그리고 보잉의 파업 여파로 인한 고용 쇼크라는 평이다.

통상 은행들은 대출수요가 없을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10월 미국 주택 판매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3.4% 상승한 396만 채로 집계됐다. 경제상황이 탄탄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 관세와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백

악관 입성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타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더해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가의 투자금융회사인 레이몬드 제임스 자산운용의 존 투히그 전액대출거래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장) 금리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해 국채 수익률,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전일 증가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05%로 한 달 전(4.271%)과 비교해 0.034%p 올랐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규모 PF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 대출은 3.4% 불과 매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금융당국이 대규모 부동산 PF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로 확정했다. 역대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경남은행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BNK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안에는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28명의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

금융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부과될 경우, 1년 이상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은행에 부과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 부문에서 신규 취급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제재다. 경남은행은 향후 6개월간 부동산 PF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다.

국내 은행이 내부통제 부실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펀드 업무를 3개월간 중단했고, 올해 4월에는 i뱅크(당시 DGB 대구은행)도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로 증권계좌 개설을 3개월간 중단했다.

당초 경남은행도 3개월 내외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경남은행은 인가 취소 직전에 해당하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측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결정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빈발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제재를 통해 은행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대출 신규 취급 중단이 경남은행의 매출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건설업 대출 잔액은 총 9400억원이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 27조원 가운데 3.4%에 불과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100% 한강뷰”

지역 대표 랜드마크 조성 중점 유엔 스튜디오와 설계 협업 진행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이 한강 조망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조합원에게는 한강뷰를 100% 보장하고, 전체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가 70%에 달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총 2360세대 중 70%에 해당하는 1652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선보였다. 조합이 당초 계획한 한강 조망 가능 1052세대보다 600세대나 많은 물량이다. 1166명에 달하는 모든 조합원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강 조망을 갖춘 단지가 지역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고,

같은 단지내에서도 주거 가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강 조망 자체만으로도 하이엔드 라이프를 위한 뺨놓을 수 없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의 향후 가치 극대화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과 네덜란드 피비우스 하우스 등을 설계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와 설계 협업을 진행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주거 가치를 높이는 조망권 특화에 집중했다”며 “한남4구역 모든 조합원에게 최상의 주거 만족도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엑스블 솔더로 아이언맨 변신... 무거운 공구도 가볍게 '번쩍'

(현대차·기아 착용 로봇)

Q 르포 | 현대차·기아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

착용 로봇 '엑스블 솔더' 공개
기본형·조절형 두 가지 구성
최대 3.7kgf 보조력 전달

“로보틱스 비전이 인류의 무한한 이동과 진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정 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가 인간의 한계 극복을 돕는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공개한 '엑스블 솔더'는 정 의선 회장이 강조한 인류의 진보를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현대차는 로봇을 매개로 하는 경험이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일하는 방식, 심지어는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를 열고 착용 로봇인 '엑스블 솔더'를 최초 공개했다. 엑스블은 무한한 잠재력을 뜻하는 엑스(X)와 무엇이든 현실화할 수 있던 의미의 에이블(able)을 합친 것으로 현대차·기아의 착용 로봇 브랜드에 해당한다.

엑스블 솔더 사용자는 어깨와 팔꿈치

등 근골격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듈에서 생성된 회전력이 사용자의 상완근력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근 활성도를 최대 60%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이날 '엑스블 솔더'를 착용하고 3kg의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산업 현장과 비슷하게 꾸민 공간에서 전동 드릴을 머리 위로 올려서 나사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어깨와 팔에 피로도는 크지 않았다.

제품을 착용해도 다른 동작을 하는데 불편함도 없었다. 어깨 관절을 굽히고 펴는 각도를 0°~180°까지로 구현하여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양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팔을 내리거나 일상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조립 현장에서 팔과 어깨를 위로 움직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작업 능력을 높이기 부족함이 없었다.

로보틱스랩이 제작한 엑스블 솔더는 고성능 차량에 쓰이는 탄소 복합 소재 등을 적용해 기존 알루미늄 소재 대비



'웨어러블 로봇 테크데이'에서 로보틱스랩 연구원이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3.3배의 강성을 확보하고 중량은 40% 경감했다. 제품 무게는 총 1.9kg다. 조끼를 제외한 본체 1개 무게는 700g에 불과하다. 신체 조건에 따라 본체 길이는 406mm부터 446mm까지 조절할 수 있다.

엑스블 솔더는 기본형과 조절형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본형은 작업 자세가 계속 변하는 근로자들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9kgf의 보조력을 제공한다. 조절형은 동일 자세를 반복하는 작업에 활용하기 적합하며 최대 3.7kgf의 보조력을 전달한다. 엑스블 솔더를 착용한 근로자가 10kg 무게의 공구를 위로 들었을 때 느끼는 무게감

은 6~7kg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산업 현장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작업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갖췄다. 로보틱스랩은 자동차 내구성 평가 기준을 접목해 3개월 단위로 60만회 이상의 가혹한 내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 중에는 매 횟수마다 토크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품질 변화 양상을 점검한다.

현대차·기아는 엑스블 솔더를 생산 부문에 우선 공급하고 내년 현대차그룹 27개 계열사로 공급 범위를 확장한다. B2B(기업과 기업의 거래) 방식으로 엑스블 솔더를 공급한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고양하이테크센터에서 작업자가 '엑스블 솔더'를 착용하고 차량 하부를 정비하는 모습.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구매 희망 기업에 엑스블 솔더 통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엑스블 솔더 도입 여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각기 다른 산업 현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1팀 팀장은 “향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제품군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신업 안전 솔루션을 선보여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사장단 인사

삼성SDI, 최주선 신임 대표 내정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등 역임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인 최주선 사장(사진)이 삼성SDI 대표로 이동한다.

삼성SDI는 신임 대표이사로 삼성디스플레이 최 사장을 내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최 신임 대표이사는 KAIST 전



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DS부문 미주총괄 등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

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우수한 기술전문성과 경영 능력

을 발휘해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스플레이 사업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가 따른다.

삼성 SDI는 “최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성공 노하우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삼성SDI의 혁신과 회사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사장 선임

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 전문가

삼성디스플레이는 28일 이청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부사장·사진)을 승진시켜,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이청 신임 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강대 화학공학을 졸업해 포항공대 화학공학박사과정을 마쳤다. 삼성전자 LCD사업부, 삼성디스플레이를 거쳐 액정표시장치(LCD), 올레드(OLED) 개발 및 공정기술 등을 경험한

디스플레이기술 전문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험과 기술 리더십을 갖춘 이청 사장을 중심으로 경쟁사들과의 초격차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ngija_tea@

삼성SDS, 새 사령탑에 IT·통신 전문가

이준희 신임 대표 내정

삼성그룹이 연일 고강도 인적쇄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SDS도 4년 만에 사령탑을 교체했다.

삼성SDS가 28일 삼성전자인준희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

팅팀 팀장(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준희 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MI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IT 및 통신기술 전문가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



즈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과 세계 최초 5G 통신망 상용화 등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삼성SDS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포스코, 포항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 만든다

트리톤 어초 설치... 생태계 복원 기여

포스코가 바다사막화 해소와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포항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포항 구평1리와 모포리 인근 해역에 포스코의 트리톤(Triton)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바다숲 조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조경석 환경에너지기획실장, 한국수산자원공단 최성균 동해본부장, 포항시 서재원 정무특보, 경상북도 박형환 해양수산과장, 구평1리 어촌계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포항 구평1리, 모포리 해역에 인공어초 트리톤을 수중 설치하고, 축구장 320개에 해당하는 약 69만평(2.29km²)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포스코는 이번 바다숲 조성에 활용된 트리톤 어초 211기 전량을 기부하는 등



포스코 철강부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트리톤 인공 어초를 해양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

총 10억원을 출연하며, 해양수산부는 국비 10억원을 지원한다.

트리톤 어초는 포스코와 RIST가 철강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를 재료로 한 인공어초 브랜드이다. 철, 칼슘 등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해양 생태계 복원과 서식생물 종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바다숲 조성 활동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SK하이닉스, 고정 배당금 25% 상향

2025~2027년 주주환원 확대

SK하이닉스가 2025~2027년 주주환원 정책으로 고정 배당금을 25% 상향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고정 배당금은 주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

연간 현금 배당금은 고정 배당금만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잉여

현금흐름의 5%는 재무 건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한다.

SK하이닉스는 재무 건전성 강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의 50% 수준을 총재원으로 설정한다. 정책 기간 종료 후에는 재무 건전성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환원을 실시한다.

/김서현 기자

3자연합 '반쪽 승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5대5로 재편

임시 주총 개최... 경영권 분쟁 지속
의결권 주식 6771만3706주 집계
'이사회 정원 확대' 정관변경 부결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중윤·종훈 '형제' 측이 각각 5대5 동수로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갈등의 핵심 주축인 양측이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제약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장 위임장 집계를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에서 4시간 넘게 지연된 일정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이 시작됐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률은 84.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석한 주주의 전체 주식 수는 5734만864주,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자리에서 임중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6771만3706주 등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3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3자 연합이 제안한 '정관변경'의 건은 부결되면서, 3자 연합이 계획했던 6대 5 구성을 갖춘 이사회 재편성은 무산됐다.

3자 연합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려

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될 1인 자리에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올린다는 전략을 지속 밝혀왔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은 종전대로 10명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이사회 구성은 5대 5로 변화를 맞게 됐다.

두 번째 안건인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

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결과다.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금까지 정원 10명 중 9명이 5대 4 구성을 이뤄왔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중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후보 권규찬(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 등 3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해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시 형제 측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임중윤·종훈 형제를 비롯해 해당 이사진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세 번째로 상정된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은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임중윤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오늘

임시 주총을 계기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결과는 '한미약품그룹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경영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약품그룹의 오랜 최대 개인주주로서, 치열한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오는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해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4인뱅, '혁신 서비스' 미이행 시 인가 후 업무제한

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
안정성·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강조
신용평가모형 혁신·포용금융 강화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

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평가의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거가 필요했다.

이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

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 ↑)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 ↓)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U+, AI·디지털 혁신 통해 성장 기반 마련

홍범식 체제 첫 조직개편 단행

LG유플러스가 홍범식 신임 대표를 맡은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담그룹을 신설하며 AI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AX(AI 전환) 사업화 조직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홍범식 CEO(최고경영자) 체제를 맞아 시행하는 첫 번째 조직개편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AI 전환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회사)



로 빠르게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주도하는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을 신설한다.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은 B2C(기업-소비자 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컨슈머 부문에 배치된다. 그룹 산하에는 '모바일에이전트 트라이브'와 '홈에이전트 트라이브'를 각각 신설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각 조직을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을 차용한 애자일(Agile) 형태의

팀이 모인 '트라이브(Tribe)'로 구성해 AI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AICC(AI컨택센터)·AIDC(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B2B(기업간거래) 사업에서도 AX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인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CTO 직속으로 '에이전트/플랫폼 개발랩'을 배치해 AI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더한다. CHO 산하에는 'AX/인재개발 담당'을 배치함으로써 전자 구성원의 AX 역량 확보 및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 김태형 부사장 등 31명 임원 승진

실무급 임원 전진 배치

효성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효성은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사진)이사의 부사장 승진과 8명의 신규 임원 선임 등 총 31명 규모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89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전통 무역맨이다. 2012년 전략본부 LED 사업단 및 사업개발 담당 임원을 거쳐, 2017년 두바이지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대표 펄프 전문 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주)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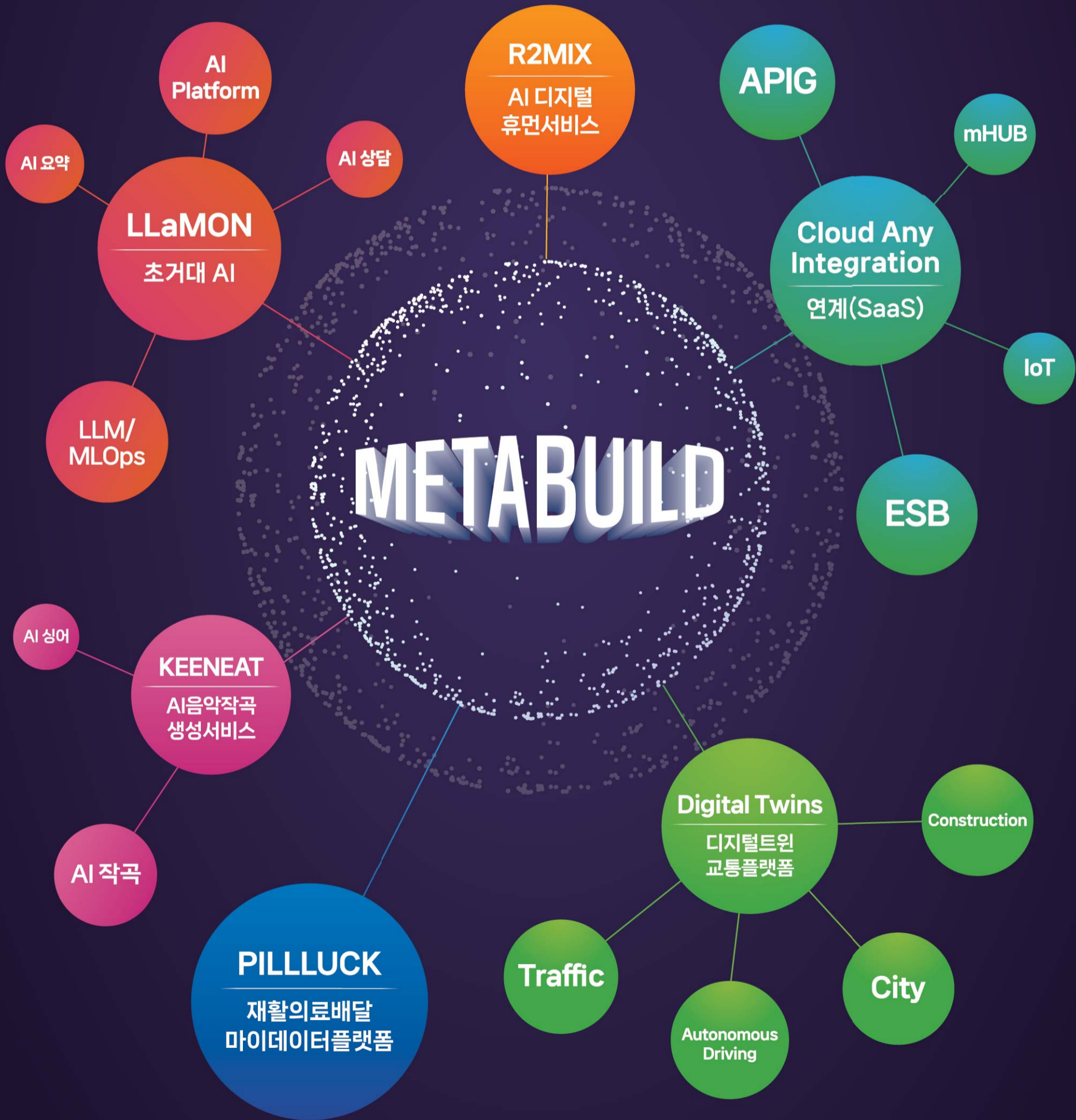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GS건설

신화 속 낙원 거니는 듯... 푸르름 가득

GS건설이 지은 '복수원자이렉스비아'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1개동, 2607세대 규모로 지난 3월 입주했다.

'엘리시안'을 테마로 한 공중정원 같은 공간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움을 뜻하는 엘리시안은 영웅들의 낙원, 즉 이상향과 최상의 행복을 의미한다.

푸르름이 시작되는 '거울못엘리시안'에서는 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총림, 다단의 목재 스탠드로 구성된 '카페틀 엘리시안'과 옆 공간으로 이어진 지하정원에선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보트 조형물, 난파선이 꾸며져 있는 탐험 공간 '레디투 트레블'에서는 색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부서진 배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고래 섬 아지트 '댄싱위드웨이'은 고래 위에서 바다를 향해하는 모험을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GS건설은 입주민의 편리와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 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만들었다. 야외에는 풋살장도 있다. 어린이들에게 모험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설치됐다.

단지 인근에는 공공기관 이전 후 남는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터로

DL이앤씨

조형물·정원에서 탄생한 그림 같은 경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지어진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터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 동, 총 822세대 규모로 지난 2월 입주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입주민을 위해 e편한세상만의 역량이 집중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했다.

C2 하우스는 소비자 니즈 분석을 통해 개발된 맞춤형 주거 평면이다.

단지에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됐다. 실내의 통합 공기질 센서가 설치돼 입주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24시간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

단지에는 탑 모양의 조형물과 정원이 설치돼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 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인천아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계양천, 아라노을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SK뷰 학익

SK에코플랜트

수생비오톱, 작은 농장에서 '특별한 경험'

SK에코플랜트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지은 'SK뷰 학익'.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14개동 1581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입주했다. 단지 중앙에 있는 '갤러리아아트리움'에는 예술적 미를 담은 조형적 휴게시설과 모던한 연못, 미술 장식품이 조화롭게 이뤄져 있는 럭셔리 휴게공간이 조성돼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 '수생비오톱'에는 개구리와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등 터전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냈다. '힐링북가든'에서는 선비의 지혜를 상징하는 학자수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미래의 꿈을 꾸며 여유로운 도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키즈카페, 운동시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야외 피트니스그라운드, 작은 농장을 즐길 수 있는 팜하우스 등도 있다.

단지 후문에는 꽃댕강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로맨틱가든'이 조성돼 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이색적인 그라스를 바라보며 한가로이 쉼을 즐길 수 있는 로맨틱 휴게공간이 있어 단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학익초, 인주중, 인하대사범대학중·고교 등이 위치해 있고 수인분당선 인하대, 학익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2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있다. /전지원 기자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

대우건설

소나무와 작은정원 '라운지가든'서 힐링



대우건설이 시공한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771가구 규모로 지난 3월 입주했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단지에는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실시간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 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됐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눈에 띈다. 소나무와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이 자리 잡고 있다.

가족과 이웃, 자연과 단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도 조성돼 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 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독서실,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다.

단지 인근에는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예정)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더샵 둔촌포레

포스코이앤씨

반려동물과 뛰놀고, 팽나무 숲길 걸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둔촌포레'. 포스코이앤씨가 둔촌 현대 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3개동 증축도 이뤄진 최초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대 14층, 총 8개동 572세대 규모로 지난 10월 입주했다.

세대 천장에 설치되는 배관 및 덕트를 우물천장 밖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적용해 높은 천장고를 확보했다. 별동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세대는 전용 84㎡, 112㎡으로 구성되어 4베이(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 양면개방형 세대로 설계됐다. 단지 내 공원 '백년명원'의 테마는 아른아른거리는 환상 속 신기루 숲이다. 제주 팽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몽환적인 숲의 정원을 느낄 수 있다.

윤노리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공간 옆에는 놀이터 '액티브 그라운드(Active Ground)'가 있다. 귀여운 고양이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커다란 고양이를 따라 함께 낚시를 하며 연못 속 친구들을 만나는 컨셉으로 꾸며져 있다.

'팽가든'과 함께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팽가든'도 조성돼 있다. 커뮤니티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을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바로 앞에 선린초, 둔촌중·고교가 있고 도보권 내에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둔촌동역이 있다. /전지원 기자



제일풍경채옥정

제일건설

자연속에 빠진듯... 사슴이 머무는 광장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조성한 '제일풍경채옥정'.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6개동, 총 1304가구 규모로 지난 1월 입주했다. 단지 중앙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터를 조성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잔디광장에는 나무와 사슴을 조형화 한 '산들바람'이 설치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담은 파스텔톤의 나무 조형물은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한 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단지 내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숲속 커다란 그루터기, 경철서, 오두막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자녀들을 위한 플랜바이시스 어학원과 키즈카페가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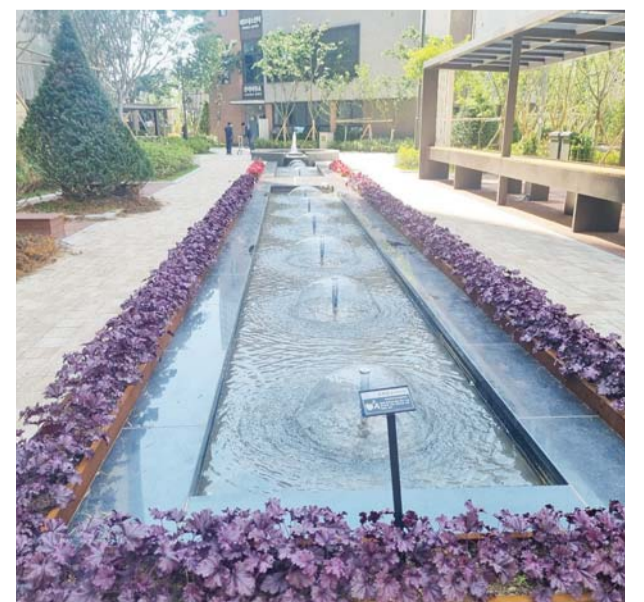
단지 바로 옆에는 옥정중앙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이 위치하며 천보산, 선돌근린공원, 독바위공원 등 쾌적한 자연 환경이 인접해 있다. /전지원 기자



쌍용더플래티넘장항

쌍용건설

바닥분수, 사철 푸른 휴케라 보며 '休~'



쌍용건설이 시공한 '쌍용더플래티넘장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들어섰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1566세대 규모로 지난 3월 입주했다.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진 단지다.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다. 쌍용건설이 건물 외관 등 골조까지 마감한 후 내부공사는 입주자가 진행하는 방식의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침실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알파룸, 팬트리 공간 등이 마련돼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침실에 딸린 드레스룸은 아가방으로 사용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편이다.

단지 중앙에는 조형폰트 및 바닥 분수가 설치된 친수형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다. 분수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는 붉은 '휴케라'가 식재돼 있어 그림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과 가까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꽃 전 시관', '낙민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전지원 기자

K-반도체·자동차 ‘불확실성’ 확대 코스피 대장주들, 주가 급락에 고전

트럼프 발 변동성 심화

美 보호무역·반도체 제재 우려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2거래일 동안 4.80% 하락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날 기준 약 51%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56%대에 머물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날 SK하이닉스도 4.97% 떨어졌으며, 이날도 4.28% 하락 마감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동반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다”며 “전일 보조금 재검토에 이은 미국발 악재가 이어지는 등 국내 반도체 투심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메모리칩 판매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칩에 대한 조항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hatGPT에 의해 생성한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자동차 종목들의 약세’ 이미지.

마이크론과 같은 주요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소식통들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규제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업들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바로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를 더하게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급망을 둔 자동차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 대선을 앞두고 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9.34%, 기아는 3.51% 하락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캐나다에 연결고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멕시코는 GM의 경우 70만대, 스텔란티스는 30만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한

다. 이중 픽업·SUV 등 대형 차종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 경우 부품 공급망(씨플라이체인)이 모두 훼손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거점이 없는 테슬라도 공급망 차질을 겪을 수 있고, 현실화는 불가능한 구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대차는 전날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결정을 공시했다. 보통주 390만7000주, 기타주 75만9000주 등 총 466만6000주다. 이는 취득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7%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심을 되돌리지 못한 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0.90% 떨어지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유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업종은 연말로 갈수록 주가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밸류업, 실적 서프라이 등 모멘텀 존재한다”며 “관세 이슈로 나타난 주가 변동성은 매수 기회로 활용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 해결해야”

거래소 방문해 ‘상법 개정’ 의지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아무리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 원인으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을 꼽았다.

그는 “똑같이 투자했는데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수십 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도 안 받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서 선량한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 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 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평등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연 7% 고배당 ‘발해인프라’ 상장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KB자산운용 대표인프라펀드 ‘발해인프라투자회사’ (KB발해인프라)가 29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인수물량을 상장 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초 토종 공모 인프라펀드 ‘KB발해인프라’는 유료도로와 터널,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주로 투자한다. 현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남양주 수석-호평간도로 ▲서울 용마터널 ▲부산 산성터널 ▲수원의곽순환(북부)도로 등 연간 약 1억800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우량 유료도로 자산의 운용 수익을 배당하고 있다.

토종 인프라펀드로는 1호 상장 사례

인 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앞서 KB발해인프라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3.99대 1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관사단은 공모 규모를 80%로 축소하고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신하은 기자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기업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는 상법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재계는 상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금감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주주 보호 원칙을 특별 규정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

호 원칙을 적용하면 일정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장법인은 2400여 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 가 넘는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 적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 면책이 보장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 웨어칸 인수로 인도 시장 공략

“5년 내 현지 5위 증권사 목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 인수를 완료했다.

2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웨어칸 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이날 인수를 마쳤다.

미래에셋웨어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웨어칸은 지난 2000년에 설립돼 310만 명 이상의 고객, 120여 개 지점 및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

는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이번 인수로 인도 WM사업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 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도 웨어칸 인수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의 40%를 배분한 글로벌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 오는 2027년부터 글로벌 사업 세전 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아이들형 - 신성록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 10만명 이하로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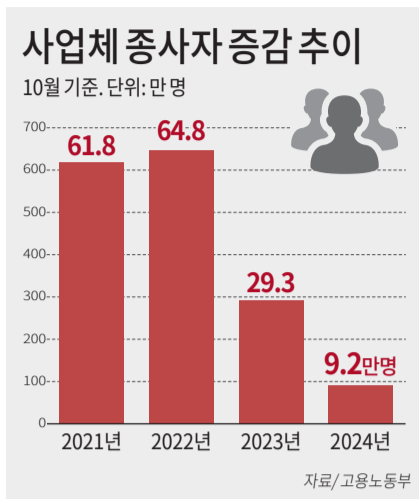
고용부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 상용근로자, 전년보다 0.2% 늘어 3분기 명목·실질임금 3.4%·1.3% ↑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



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 도매 및 소매업(-0.9%)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량 증가에 그쳤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2.4%), 이직자는 85만6000명으로 9000명(-1.1%)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다 보니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준 것 또한 전체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했는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다만,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입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방글라데시와 EPA 협상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이 개시돼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에서 체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과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며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16억2600만달러, 수입은 6억4900만달러로 약 23억달러다. 2026년 UN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에 대비, 일본·중국·인도·대국 등 주요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날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재한(왼쪽에서 세 번째) 농촌진흥청장이 28일 충북 진천의 한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해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진청

농진청, 고추 재배기술 개발에 팔 건어

고령화·노동력 부족에 수확량 ↓ 스마트팜 수경재배 현황 점검

농촌진흥청이 고추 생산량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고추 농가는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수확량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생산 면적이 40% 감소하고 농가당 재배 면적 또한 소규모화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계화 도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비가림시설 등 시설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특히, 생산

량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재한 농진청장은 28일 충북 진천의 한 스마트팜 시설을 찾아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조절기술을 활용한 노동강도 완화, 병충해 극복,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점검했다.

진천 농가에서는 최근 2년간 고추 수직 수경재배 시험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본격적인 수경재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고추 스마트팜 재배 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활용 농업생산기발시설 안전진단 논의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 '2024년 농업생산기발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안전진단 관리체계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첨단 홍수에·경보시스템 구축 ▲댐·저수지의 첨단 안전장비 및 현장 조사 기법 등 최신 기술과 연구성과를 담은 주제발표 등이 소개됐다. 또 ▲노후 중·소규모 농업용댐 긴급 홍수대응기술 ▲비상대처수립 절차 및 강화방안 ▲재난 상황별 대처방안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발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을 통한 사전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기업인들 한자리에 스타트업·AI 협력 등 논의

무협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양국 간 규제 검토·협력 강화 필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 제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AI(인공지능) 분야 협력과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2월 무협이 출범한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이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를 비롯한 한국 측 위원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포함한 소속 위원 14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해소돼 양국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스타트업,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그린에너지 전환, AI 포함 첨단기술 등 4대 한일 협력분야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긴밀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양국 기업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진 왼쪽)과 조현준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앞서 한담을 나누고 있다. /무협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이후 양국 경제단체 공동 제안(Joint Statement)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및 AI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양국 간 규제 검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와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문제에 공감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헬스케어 분야 협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무협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 도쿄에서 '제3차 한일 경제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성공사례를 발굴해 양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서울 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2024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공공구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제도혁신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한다. aT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계약상대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aT는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을 위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2년 연속 초과 달성했고, 작년 6월에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선제 도입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대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감절 예방을 위한 내부 제도 정비 ▲고유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분야에서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에 이어, 한 달 만에 공공구매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국 관광객 감소에 e커머스 공세 ‘실적악화’ 면세점 “돌파구 찾아라”

롯데·신라·신세계 등 3분기 손실
신세계 1천억 원에 체형형 쇼핑공간
871평 규모에 140여개 브랜드 참여
신라 1천억 원 화장품 이어 주류 매장도
132평 규모, 200여 종류 브랜드

명품 e커머스 플랫폼 확산세로 면세점 업계의 불황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면세점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데, 명품 플랫폼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면세점 업체들은 그 동안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외에도 명품 e커머스 플랫폼의 확산세가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주요 면세점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며 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롯데면세점은 3분기 46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신라면세점은 같은 기간 38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신세계디에프는 162억원의 손실을,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시내 면세점 부진으로 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면세점은 전통적으로 해외여행객들

에게 명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 면세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관광객 소비 둔화가 맞물리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여기에 명품 e커머스 플랫폼 성장세가 면세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럭셔리 전문관 ‘럭스’에는 샤넬, 크리스찬 디올, 발렌시아가 등 80여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채널에 직접 신규 입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내년까지 브랜드를 22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지난해 인수한 명품 플랫폼 ‘파페치’도 예상보다 빠른 성과를 내며 명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거담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계획보다 일찍 파페치에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수익성을 달성했다”며 “고객 감동과 운영 우수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품 플랫폼 ‘젠데’ 역시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할인 행사 ‘얼리버드 세일’에서 첫날 거래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MZ세대 중심으로 소비된 ‘키코 코스타디노프’, ‘기마구아스’ 등 신제품들이 성장을 견인했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면세업계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고객 체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871평 규모의 체험형 쇼핑 공간 ‘신세계 존’을 오픈했다. 패션과 뷰티 등 140여 브랜드가 참여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화장품·향수 매장과 함께 주류 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뷰티 매장은 166평 규모로 77개의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주류 매장은 132평 규모로 200여 종류의 주류와 식품 브랜드를 포함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객 체험형 미디어 콘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에서는 모바일과 연동된 체험형 미디어 게임 ‘아이스 브레이크’를 내달 31일까지 선보인다. 고객이 큐알코드를 스캔해 모바일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면, 그 화면이 대형 전광판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 과일매장에서 매장 방문자가 내륙 재배 감귤인 탄금향을 들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롯데마트

롯데마트·슈퍼 ‘충주’ 레드 탄금향 판매

기후변화 대응 내륙산지 감귤류 확대

롯데마트·롯데슈퍼가 주산지 제주도를 벗어난 내륙 산지의 감귤류 운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염과 높은 평균 기온으로 감귤과 만감류의 열과 피해가 급증해,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이달 28일 충북 내륙 지역에서 재배된 ‘충주 레드 탄금향(1.5kg/박스)’을 1만6990원에 판매한다. 적극적인 산지 다변화 정책을 통해 충주 산지와 사전 계획해 전년 대비 운영 물량을 약 60% 이상 확대, 총 50여 톤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게 롯데마트·슈퍼 측 설명이다.

탄금향은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잡한 감귤(레드향)의 일종으로, 충북 충주지역에서 지속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대체 작물이다. 제주도 이외의 중부내륙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품종이다.

또한, 탄금향은 수막 재배 방식을 통해 재배돼 과일 100g당 약 12g의 높은 당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수막 재배 방식은 물이 많은 충주 산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재배 방식으로, 비닐 하우스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 안쪽 하우스에 지하 암반수를 흘리고 수막으로 감싸 추운 내륙의 기후에도 감귤류가 성장하기 좋은 기온을 유지해 주는 방식이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 북미서 ‘상온 즉석밥’ 판매

‘비비고 코리안 바비큐 볶음밥’
현미 사용, 고슬고슬한 식감 살려
전자레인지 90초 조리로 간편해



미국 월마트에서 소비자가 비비고 코리안 바비큐 볶음밥을 살펴보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북미 시장에 상온 즉석밥인 ‘비비고 코리안 바비큐 볶음밥’을 수출·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기존에 냉동 볶음밥을 북미에서 판매 중이었으며, 상온 볶음밥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비고 코리안 바비큐 볶음밥’은 CJ제일제당의 천연 조미소재인 ‘테이스트앤리치’를 사용해 볶음밥의 풍미를 극대화했으며, 현미를 주 원료로 사용해 밥알의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렸다. 상온으로 출시돼 보관이 간편하며, 유통기한도 15개월로 냉동 볶음밥에 비

미 시장의 볶음밥 제품은 보통 파우치 형태로, 조리 후 그릇에 덜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신제품은 현재 월마트(Walmart), 퍼블릭스(Publix) 등 주요 그로서리 채널에 입점되었으며, 향후 주요 유통 채널에도 입점 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의 상온 즉석밥은 백미를 중심으로 북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헛반 백미 매출이 전년보다 약 20.6% 상승한 16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9월까지의 누적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상승했다. 현재 헛반 백미는 미국·호주·멕시코 코스트코에 입점돼 있으며, 향후 판로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생활건강, 시그니처 블랑쉬머스크 출시

삼푸·트리트먼트... 머스크 계열 향

LG생활건강은 삼푸 브랜드 엘라스틴에서 ‘시그니처 블랑쉬머스크’ 삼푸와 트리트먼트를 새로 출시했다고 28일 선보였다.

지난 8월 처음 선보여진 엘라스틴 ‘시그니처’ 제품군은 생화향 1종만으로도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수 4만 개를 돌파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인 블랑쉬머스크 제품군에는 머스크 계열 향이 담겼다. 화이트 로즈, 바이올렛, 화이트 머스크 향을 적절히 배합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숲 이불 위의 꽃 한 송이’가 떠오르는 겨울과 잘 어울리는 향을 구현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삼푸 제품은 판데놀, 비오틴 등 두피 보습을 위한 특화 성분을 포함해 세정력을 갖췄다. 또 저분자 단백질, 17종 아미노산, 시어버터 등의 영양 성분이 거칠고 푸석한 머릿결에 부드러운 윤기를 전달한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자사 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품질 평가에서 삼푸와 트리트먼트 병행 사용 시, 모발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마찰 계수가 70%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제품들이 두피 고민을 가진 고객, 모발 손상으로 고통받는 고객 등 모두에게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오픈

강서점 새단장... 현장 콘텐츠형 매장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이 28일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로 새단장했다.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는 ‘세상 모든 맛이 살아 있다’는 콘셉트 아래,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을 극대화한 현장 콘텐츠형 식품 전문 매장이다. 고객에게 보고, 맛보고, 맡고, 듣고, 즐기는 입체적 쇼핑 가

치를 제공하는 차세대 미래형 마켓 모델로 구상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회·초밥 현장 시연 등 신규 콘텐츠 개발 ▲고객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시식 코너 및 대면 행사 강화 ▲트렌디한 팝업 존·주요 입점 업체 유치 ▲디지털 간판을 활용한 시각적 몰입도 확장 등에 주력했다.

가장 먼저, 홈플러스는 공유 주방 ‘싱싱화관 라이브’를 선보인다. 매장에 설

치된 활어 수조를 통해 신선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참치회, 각종 생선회, 료, 참치 후토마끼, 초밥 등 다양한 식사류와 함께 무침류, 샐러드 같은 해물 요리 상품도 준비했다.

또한 고객 주문에 따라 전문가가 즉석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하루 2회 한정으로 운영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 강서점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식 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오늘의 요리 라이브 시식코너’를 통해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과정을 직접 시연한다. /안재선 기자

엔씨소프트, 4개 자회사 설립 확정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 속도

엔씨소프트가 28일 판교 R&D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위한 4개의 자회사 설립을 확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단순·물적 분할을 통해 4개의 자회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사항인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신설 회사는 3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 ㈜퍼스트스파크 게임즈, ㈜빅파이어 게임즈, ㈜루디우스 게임즈와 AI기

술 전문기업 ㈜엔씨 에이아이(NCAI) 등 4개의 비상장 법인이다. 신설 법인 4곳은 2025년 2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퍼스트스파크 게임즈는 TL의 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통해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TL을 글로벌 IP(지식재산권)로 육성한다. TL 개발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TL Camp 최문영 캡틴이 대표를 맡는다

㈜빅파이어 게임즈는 LLL의 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LLL은 슈팅 장르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지닌 IP다. /최빛나 기자 vitna@



기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기술보증기금이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민간인증서 기반의 문서 전자서명 도입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에코프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에코프로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에코프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남해군에 '해피휴 12호점' 완공

롯데웰푸드는 전남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인 '롯데웰푸드 해피휴 12호점'의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범정 경희사이버대 교수, 한의학 '우수연구자상'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김범정 한방건강관리학과 학과장이 지난 3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전국한의학 학술대회'에서 기초한의학학술부문 대한본초학회가 수여하는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케이벨브, 친환경 기술로 국무총리상 수상

피케이벨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친환경 에너지 LNG 운반선 및 추진선용 초저온 버터플라이 밸브 제조 기술'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팀, 전국체전 메달 30개 획득

올해 6개 종목에 35명 출전 역도 19개 등... 신기록 갱신 선수·지도자에 포상금 지급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운영하는 장애인스포츠팀 소속 선수들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8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자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스포츠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한국신기록을 갱신했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팀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6개 종목에 35명이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8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역도에서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팀이 지난 26일 청주체육관에서 제 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상 선수 포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 금메달 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기록했고, 조정 단체경기에서 창단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축구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영에서 은메달 2개를, 사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육상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도 부문 100kg 급에 출전한 황상훈 선수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파워리프트 종합 종목에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 신기록을 모두 갱신하며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황상훈 선수는 데드리프트 213kg, 스쿼트 201kg, 합계(파워리프트) 414kg을 기록하며 작

박한용 세종대 교수, 디지털육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실리코젠 생물정보학 기술 결합 표현형 정보 1.2만 건 등 포함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는 박한용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교수가 인실리코젠(대표이사 최남우)과 함께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유전형 및 표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박한용 교수의 30여년간 축적된 무(Radish) 육종 연구와 인실리코젠의 고도화된 생물정보학 기술이 결합된 결과로, 디지털

육종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지털육종은 육종 과정에 디지털화된 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합해, 전통적인 육종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품종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로, 유전형 및 표현형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어야 AI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품종을 예측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유전형·표현형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육종의 핵심 자산으로, 다양한 품종의 유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원에 특성(표현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AI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품종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박한용 교수는 국내 김장 문화에서 핵심 품종인 '박달 무'의 유전체(Park et al., 2024)를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엘리트 계통의 유전형 및 표현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인실리코젠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생물

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관왕에 올랐다.

한화큐셀은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6일 청주체육관에서 포상식을 열고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포상금과 격려품을 지급했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팀 구봉석 단장은 "그간 많은 노력과 훈련 끝에 값진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한화큐셀은 장애인스포츠팀 확대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뛰어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장애인 체육인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19년 장애인스포츠팀을 창단하여 6년째 운영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정보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육종을 위한 필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무, 오이, 호박에 대한 표현형 정보 1만2704건, 유전형 정보 393건, 유전자원 정보 459건이 포함돼 있어, 향후 육종 연구 및 품종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품종 육종과 유전자원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과학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박한용 교수는 "전통육종과 디지털육종의 만남은 신품종 육종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

/이현진 기자 ihj@



2024학년도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참석 내외빈 및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학생 10명, 총 1000만원 장학금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7일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2024학년도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곽효범 학생지원처장, 전병권 하나은행 경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

관계자와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1989년부터 하나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인하대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 10명이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올해까지 93명에게 총 1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인사

- ◆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승진 △이정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 부사장 → 대표이사 사장
◆ 삼성글로벌리서치 ◇위촉업무 변경 △최유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장 사장

부음

- ▲ 오금자씨 별세, 유대식(반도출딩스 대표)씨 배우자상, 유병하·주연씨 모친상. 김민정씨 시모상, 김영식씨 빙모상 = 27일,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장지동화경 모공원, 02-2227-7500

중진공,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한국평가데이터와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한국평가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재무·비재무 데이터 활용 지원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 교육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공동 지원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홍두선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유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 파인더'와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등에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연계해 더욱 정교한 기업 분석 기반을 확충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백화점, AI·코딩 클래스 운영

넥슨 '메이플스토리' 활용

현대백화점이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등 주요 7개 지점에서 내년 3월까지 AI·코딩 카테고리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클래스는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를 활용해 직접 게임을 제작해 보는 '나만의 게임 만들기' ▲전자 블록을 손으로 연결하며 코딩 알고리즘을 배우는 '손으로 만드는 블록 알고리즘' ▲인공지능(AI) 서비스 기획 과정을 다루는 'AI는 내 친구, 인공지능 히어로가 되어보자' 등 총 3가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외통수 걸린 임종룡의 선택은?



이 정 희 역
西村브리핑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란 승부수로 '기사 회생(起死回生)'하는 듯 보였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에 빠졌다.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이 맞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 대출건이다. 그동안 은행내에서는 손 전 회장 부당 대출과 손 전 회장 처남의 인사개입건이 풍문으로만 떠돌았다. 그러다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가 부당 대출 가능성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2023년 10월로 알려져 있다. 은행이 1차 자체 조사를 끝내고 조병규 행장과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에게도 보고한 시점은 2024년 3월이다. 이후 5월부터 은행 측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우리은행에 확인을 요구하면서 부당 대출 사건이 8월경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의 '늑

장 보고'에 대해 현 경영진을 강하게 질책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우리금융 측에선 "보고를 받기 전까지 부당 대출건에 대해 임 회장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2023년 3월에 취임한 임 회장이 손 전 회장 관련 문제를 취임 1년 이상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해 날을 세울 때만 해도 통상 금감원이 시장을 의식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은행장 선에서 사태가 봉합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 관련 질문에 "지금은 조직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기업문화 혁신 등이 중요하다"고 답해 퇴진보다는 임기를 채우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조 행장이 부당 대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정기검사를 이달 말까지 또 다시 연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조 행장만으로 쉽게 끝날 차원이 아님을 검사 연장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금감원 검사와 별개로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 혐의를 들어 지난 18일과 19일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 붙었다. 12조는 '금융회사의 장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범한 죄를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고 200만원 벌금을 위해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금감원과 검찰의 압박 수위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정 조준 상대는 임 회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나가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외통수'에 걸린 임 회장의 선택지는 버티거나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지금의 대국 판세를 보면 결국 임 회장이 백기를 들어야 끝날 수 있다. 예전에도 금감원과 각을 세웠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꽤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결 같았다. '백전백패', 금융사 CEO가 손을 들었다. /ljh@metroseoul.co.kr

확산되는 가축전염병 위기, 방역과 지원이 관건



기지 수첩
김 대 한
(정책사회부)

최근 축산 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렙피스킨병(LSD) 등 각종 가축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을 비롯해 돼지와 소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가들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충청남도 서산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사례다. 한편, LSD는 8월 12일 첫 사례 이후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경기 5

건, 강원 7건, 충북·충남·경북·대구 각각 2건, 전남 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농장에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LSD는 백신 접종으로 대부분 발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AI와 ASF는 치료 방법이 없어 발병 시 살처분이 유일한 방역 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이러한 질병들은 확산 시 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게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 체계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겨울철 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도래로 AI 추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과감한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멧돼지와 철새 등 야생동물이 주요 전염병 매개체로 작용하며 확산되는 상황은 농가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발생 농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의 주요 식량을 책임지는 농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kdh@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음 10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어려움이 오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 48년생 늦어도 오늘 걸어야 내일 뉘지 않으니 게임을 피우지 마라. 60년생 갈팡질팡하다가 때를 놓친다. 72년생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이가 있으니 신중하. 84년생 시작과 마무리도 산뜻.
- 소** 3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49년생 그래도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실패가 적다. 61년생 가장 큰 보물은 가족이다. 73년생 시간이 많다면 인생이 지루하게 흐른다. 85년생 고생이 많지만 된다.
- 호랑이** 38년생 하늘을 원망 말고 새로운 일을 찾아라. 50년생 강물이 바다로 나다니 큰일이 펼쳐진다. 62년생 관세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이동. 74년생 경관은 수려하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86년생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 토끼** 39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고 양보는 것이 상책. 5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3년생 돈에 욕심을 뿌리면 탈이 나게 마련. 75년생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창업을 해도 발전된다. 87년생 술을 먹고 마찰하지 않도록 해야.
- 용** 40년생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다 내뱉지 마라. 52년생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는다. 64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화제부터 준비. 76년생 소중한 인연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88년생 작은 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부정함.
- 뱀** 41년생 나이가 있어도 정보수집이 먼저다. 5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법. 6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한 하루. 77년생 아침부터 영업을 손놓아 뜻을 단 듯 일이 손조름다. 89년생 오늘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
- 말** 42년생 남쪽에서 오는 손님이 귀인. 54년생 주변 뒷안 하지 말고 자신도 노력을 하라. 66년생 이도 저도 심드렁하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78년생 지인과의 계약은 이로운 것이 많다. 90년생 오전에 이직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 양** 43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을 불러온다. 55년생 격한 언행으로 주변에 괴리감이 생긴다. 67년생 오늘 쉬면 내일이 힘들다. 79년생 어느 것이든 값진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91년생 반란군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원숭이** 44년생 자식들의 밀 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을 채울 것인가. 56년생 떠난 인연의 미련을 빨리 떨쳐 버려라. 68년생 기다림이 길어서 마음이 불안. 80년생 좋은 소득 결과를 보기 위해 인내하라. 92년생 내가 가진 특기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 닭** 45년생 모야든 적금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파. 57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라. 69년생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니 기쁜 날. 81년생 거래가 역을 해도 다시 변화를 찾아야. 93년생 근거를 마련해서 상대를 설득시켜라.
- 개** 46년생 공연한 칭찬은 오히려 반감을 산다. 58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7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적다. 82년생 풍요로운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 94년생 하루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바쁘니 고맙다.
- 돼지** 47년생 믿어 주는 이가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59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71년생 마음에 없는 웃음을 웃어야 한다. 83년생 고지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진행. 95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흉탄을 튀기자 말고 떠나야만 도리.

김상회의四季 스스로 궁구



삶의 행로에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방할 수 없는 재앙이나 가족사에 불행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큰 사건이 아닌 보편적 삶에서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직이다.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일이다 보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얻을까. 설문 조사를 해보니 많은 직장인이 운세 상담을 자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관련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이직이나 승진과 관련해서 꾸준히 명리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

필자도 직장인들의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다. 많이 질문하는 건 이직에 관한 것이고 결혼 문제 그리고 승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시기가 가장 민감하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개개인의 사주와 운세이다. 사주에 따라 운세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개운 하는 시기를 맞춰 이직하는 게 좋다. 진퇴의 시기에서 열리는 시기에 이직하면 떠나는 곳에서는 나쁜 평가가 남지 않고 새로 취업하는 곳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손해다. 사주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특장점은 물론이고 적성까지 고려해서 긴 시간을 내다 봐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인생길을 바꾸는 것과 같다.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있을까. 직장 동료에게 말하는 건 불필요하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해도 말이 새어나가는 건 순간이다. 일차적으로는 친구와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만 일하느라 지친 친구가 때마다 노력을 기울여서 성의 있게 들어주는 건 힘들다. 해법은 결국은 자신의 팔자를 펼쳐보고 스스로 궁구하는 수밖에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과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무인화 시스템 '세계 최고'... 전장사업 등 신사업 거점으로

프로

행성전자 베트남 하이퐁공장

'60주년' 행성전자, 17개 공장 운영
가전부품 등 생산... 매출 20% 차지
전장·배터리 부문 꾸준히 성장중
자동화로 실수 줄이고 효율 극대화

'Khong gi la khong the! Hay tim cach de lam!' (안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2시간 가까이 달리면 만나는 도시 하이퐁. 베트남의 다섯개 중앙직할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퐁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 'LG의 도시'로도 불린다. 하이퐁에는 이들 LG 계열사에 부품, 제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비롯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 183개사가 3개 공단에 걸쳐 밀집해 있다.

1964년 설립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행성전자. 베트남행성(HAENG SUNG ELECTRONICS VIETNAM)도



하이퐁공장의 창고는 자재 입고, 관리, 라벨 부착 등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행성전자의 베트남 하이퐁 공장 생산 라인 전경. /김승호 기자

2015년부터 하이퐁에 터를 잡고 가동을 시작했다.

"베트남공장은 한국(8개 공장), 중국(5개 공장),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행성전자의 글로벌 17개 공장중 한 곳으로 지난해 약 17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행성전자 전체 매출의 약 20% 수준이다."

지난 22일 행성전자 베트남공장서 만난 최수현 법인장의 설명이다. 최 법인장은 전장사업본부장도 겸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공장에선 자동차 통신모듈용 IVI SMT,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PCBA,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Display SMT, 그리고 Harness 등을 제조하고 있다. IVI SMT는 이쯤만 대면 알만한 유럽의 자동차브랜드 완성차에 들어간다.

최 법인장은 "독일의 한 자동차 브랜드는 전차종에 우리가 제조하는 부품을 장착한다. 전체 매출 중 가전이 높긴 하지만 2016년부터 전장 및 배터리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신사업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성베트남은 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완성한 무인화와 '정감관리'에 집중한

노무정책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무인화 프로세스는 거래처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월드 베스트'로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 4G, 5G 통신모듈용 IVI SMT를 제조하는 6개 생산라인이 있는 2층의 경우 14개 검사공정의 50% 가량을 무인화했다.

최 법인장은 "검사에는 직조로봇, 관절로봇을 배치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광학검사단계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해 DX(디지털전환) 단계로 가고 있다. 1개 라인에 기존엔 10명의 작업자

가 필요했지만 이제 2명이면 충분하다. 불량률도 100만개 중 1개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년전 시작한 하이퐁공장의 자동화, 무인화 전환 작업은 올해면 마무리된다.

창고 자동화도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라인과 바로 붙어 있는 창고는 자재나 부품의 입고, 관리, 이송, 라벨 부착 등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재 수급→생산→검사를 상당부분 자동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라인별 생산성이 25% 정도 향상됐다.

이와 함께 행성베트남은 최근 4년간 탐장급 이상이 단 한 명도 퇴사하지 않을 정도로 노무관리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야외에서 단합대회를 한다. 탐장급 이상은 워크숍을 통해 회사의 경영 비전을 공유한다. 올해 여름 태풍 '야기'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소위 '정감관리'를 통해 소통과 화합에 주력하고 있다."

/하이퐁(베트남)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귀뚜라미보일러, '카본매트'로 숙면 책임진다

3세대 카본매트, 특허받은 열선 사용
9개 안전장치, 라돈 등 안전기준 통과

귀뚜라미보일러가 철저한 성능시험, 환경시험,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3세대 카본매트로 난방매트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있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강철보다 5배 강해 방탄복에 사용하는 아라미드 소재 중심선을 2중 특수 피복으로 감싸 내구성과 내열성을 극대화한 특허 기술인 '아라미드 카본열선'을 사용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열선 소재 자체

의 강력한 내구성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 '카본 열선 80만회 굽힘 테스트'도 끝냈다. 매트를 하루에 100번씩 접는다고 가정해도 무려 2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자기장환경인증(EMF)을 받아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으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를 저전압(매트 DC 24V)으로 변환해 더욱 안전하다. 특히, 온도센서, 과열방지, 화재방지, 과전류방지 등 9가지 안전장치를 두루 갖추고 있다.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검증과 라돈 및 토론과 관련한 국내 안전 기준

을 통과했고 난연 소재를 사용, 화재 위험성을 미리 방지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매트 세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5회까지 물세탁이 가능한 '위셔를 시험'도 끝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매트 원단은 탈취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세계적인 섬유회사인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친환경 텐셀 원단에 은이온(Ag+)을 함유한 에어로 실버 원단과 99% 탈취 효과를 가진 큐어셀 원단을 혼합한 프리미엄 소재를 매트에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납품대금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차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

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나왔다.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복규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선공업협동조합 류인규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받주서 별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9일 (금)
음력: 10월 29일

수도권 날씨
-4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26 | 해질 / 17:14

연천 -7/4, 동두천 -6/5, 가평 -6/4, 파주 -7/5, 서울 -4/4, 양평 -5/4, 용인 -4/3, 평택 -7/4, 인천 -2/5, 수원 -4/3, 백령도 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한번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체험학습 사고 나면 시달리던 교사... 할 일 다 했으면 '면책' 조항 신설
▲검찰, '체육회 비리 수사'...진천 선수촌·평창센터 압수수색 /사진 뉴시스

▲GTX-A 수서~동탄 개통 8개월 만에 '일일 이용객 1만명' 돌파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암 환자 주문에 '울컥'
▲에스알, 메타버스 활용 비상대응 훈련...시민도 참여 /사진 에스알

나파밸리 1세대 프리마크아비... '올빈'의 매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최고의 위치에 선 이들은 서로를 닮아간다. 때론 본받고 모방하며, 때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말이다.

와인의 세계도 꼭 그렇다. 프랑스에서 최고라는 보르도 와인은 기존 숙성 잠재력은 기본이요, 요즘엔 나파밸리 처럼 잘 익은 과실미에 시장에 풀리자마자 마셔도 맛있도록 양조하려고 애를 쓴다. 반면 '파리의 심판' 이후 프랑스와 어깨를 견주게 된 미국의 나파밸리는 보르도처럼 한층 우아하고, 점점 더 세월의 무게를 잘 견디도록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나파밸리에서도 보르도 처럼 올드 빈티지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곳이 바로 '프리마크아비'다. 미국에서 올드 빈티지 와인의 저장고를 뜻하는 라이브러리를 처음 만든 곳이며, 지금까지도 규모가 가장 크다.



디미트리 메나르 마스터 소믈리에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미국 나파밸리 와인과 와이너리 프리마크아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야영FBC

디미트리 메나르 마스터 소믈리에에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와인은 프랑스 등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지만 향후 100년, 200년을 볼 때는 포도 품종을 비롯해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드 빈티지를 즐기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200명 안팎 밖에 없다는 마스터 소믈리에이자 프리마크아비의 홍보대사다.

프리마크아비는 1886년에 레드우드 와이너리로 시작했다. 당시 나파밸리에 11개의 와이너리가 있었고, 프리마크아비가 12번째다. 나파밸리에서도 1세대 와이너리인 셈이다.

설립자는 조세핀 타이슨이다.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와이너리를 설립하는 거의 '사건'에 가까운 일이었고, 미국 최초의 여성 와인메이커이기도 하다. 최초 기록은 이어진다. 나파밸리에서 시음을 할 수 있는 테이스팅룸과 저장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처음으로 만든 곳이며, 단일 포도밭의 포도로만 만드는 싱글 빈야드 와인을 만든 곳은 하이츠 셀라 이후 두번째다.

이런 프리마크아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파리의 심판'이다. '고급 와인은 프랑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1970년대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 사건이다.

메나르 소믈리에에 "세계 와인시장의 판도를 바꾼 '파리의 심판'은 이제 잘 알려진 일화지만 당시 레드와 화이트 부문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든 와이너리는 프리마크아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프리마크아비는 매년 만든 와인의 30%가량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해놓고, 최소 10년, 길게는 20, 30년을 묵혀 '뮤지엄 빈티지'로 내놓는다. 메나르 소믈리에가 마셔본 가장 오래된 빈티지는 1974년이다.

프리마크아비 와인의 장기 숙성력은 균형미에서 나온다. 나파밸리의 테루아를 반영하듯 골격이 잘 세워져 있지만 과실미와 함께 우아한 산도와 타닌이 잘 어우러진다.

싱글 빈야드 와인들은 이런 특성에 고유의 흙내음과 미네랄 느낌까지 더해졌다.

'프리마크아비 보세 뮤지엄 빈티지 2002'는 2019 빈티지와 비교하면 흙내음 같은 테루아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났다. 과실미와 산미 등을 볼 때 앞으로도 추가 숙성 잠재력이 충분했다.

'프리마크아비 시카모어 뮤지엄 빈티지 2002'는 한 잔을 더 부른다는 감칠맛 같은 미네랄 풍미가 매력적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정신분석 넘어선 인지치료의 힘

책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학문인 '정신의학'이 발전하는 데 전환점이 된 42개의 사건을 뽑아 소개한다. '병리를 보면 생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처럼 마음의 병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섭렵하고 역사적 흐름을 관찰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것인지, 어떤 세상이 안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인지 나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정신의학의 탄생
하지현 지음/해냄

'정신의학의 탄생'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정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인 '인지치료'를 다룬 내용이었다. 현재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인지치료는 정신분석의 단점을 극복한 합리적인 방식의 정서행동치료로 여겨진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영역에 존재하는 무의식 안에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억압된 감정적 기억을 자유연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의식화시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억압됐다가 성인기의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치료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지만, 주 4~5회씩 긴 의자에 누워 수년간 치료를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탓에 중상류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만 정신분석 치료의 수혜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엘리스가 '인지치료'의 기틀이 되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기법을 제시한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분석가가 된 엘리스는 1940~1950년대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엘리스는 환자들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꿔 올바른 신념을 갖게 하는 '합

리적 정서행동치료'를 시행했다.

이직한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환자가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모두 망할 것이다"는 재앙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만일 해고당한다 해도 이번 회사에 금방 들어왔듯이 다른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이성적으로 논박해보는 것이다.

저자는 "인지치료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이거나, 어릴 때 겪은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해 장기간 정신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그러나 엘리스와 백의 인지치료 기법이 확립되고 우울증 메커니즘의 윤곽이 잡히면서, 우울증의 치료는 객관적 평가와 생물학적 변인에 대한 탐구, 정확한 목표 증상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라는 현대의학적 방법론에 발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밝힌다. 428쪽, 1만9800원. /김현정기자 hjk1@

책임감 있게 사정하라

가브리엘라 블레어 지음/성원 옮김/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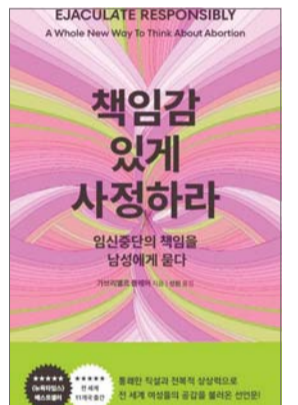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라진 2019년 이후, 임신중단은 범죄가 아닌 여성의 선택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vs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논쟁의 초점을 '남성'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닌데, 왜 임신중단에 관한 논쟁에서 '남성의 책임'을 이야기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책은 '임신중단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고 선언한다.

저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도,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것도 무책임한 남성들 때문인데 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추궁받지도 않게 된 것인지를 따져 묻는다.

232쪽, 1만7000원.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고예나 지음/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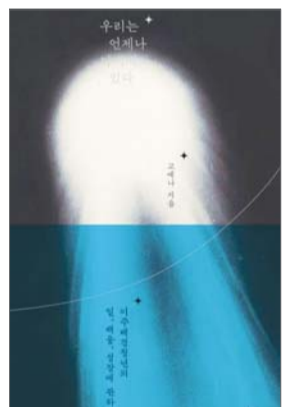
"연애를 하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둘이서 처음 만난 날 혼인 신고서에 서명을 했고, 사흘 후 합동결혼식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 (중략) 엄마와 아빠의 결혼이 개인적으로도 이상한 선택이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신붓감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농촌 총각과 결혼 주선 단체를 통해 얼굴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

해 낫선 타국으로 건너온 외국 여성. 두 사람의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났을까.

책은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이주배경 청년 고예나의 회고록이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의 생활양식을 따라 살면서 한국인이다 뻤다는 소리를 듣지만, 한국인은 아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152쪽, 1만5000원.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송병기, 김호성 지음/프스케의숲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안정과 편안함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급진적인 안락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비틀거린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와 호스피스 의사 김호성은 책에서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을 다각도로 짚는다.

두 사람은 공간, 음식, 말기 진단, 증상, 돌봄, 애도라는 6개의 키워드로 호스피스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치열하게 성찰한다. 환자를 '죽게 하지도, 죽게 내버려두지도 않겠다'는 응달로서 호스피스의 실천들을 풍부한 맥락 아래 제시하며,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죽음의 대안을 모색하는 책. 408쪽, 2만2000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머스크의 xAI, 현금 실탄 장전에 수익 구조도 개편...오픈AI 추격 '본격화' /사진 뉴시스
▲ 中 언론, 6·25 중국군 유해 11차 송환 보도

▲ 교황청, 내달 4일부터 중국어 번역 제공... 9번째 언어
▲ 대만, 라이칭더 총통 첫 순방 앞서 '선제적 야간 실사격 훈련'



▲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 /사진 뉴시스
▲ 휴전 첫날 평온 속 긴장감...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주민, 귀환 말라"



면세점
중 관광객 감소에
e커머스 공세
나



Life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팀
전국체전 우수성적
L2



관행 깨고 제로부터... 소주의 길 '새로' 열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새로'

롯데칠성음료에서 2022년 9월 중순 첫 선을 보인 '새로'는 대한민국 제로 슈거(Zero Sugar) 소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롯데칠성음료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로는 기존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한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최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 사내 시음과 소비자 조사를 거쳤다.

새로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4억병을 돌파했다.

새로의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올 4월 중순부터는 진짜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새로 살구는 새로보다 알코올 도수가 4도 낮은 12도다. 살구 과즙을 더해 소주 특유의 쓴맛을 더 즐기고 상큼함을 더했다.

새로는 과거의 고전적인 방법에서 탈피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네이밍과 브랜드 스토리 개발부터 패키지 디자인, 광고, 마케팅까지 기존 소주 브랜드에서 진행해온 전략을 모두 버리고, 철저히 MZ 에만 집중한 전략을 펼쳤다.

먼저, 제품 얼굴부터 바꿨다. 제품 패키지는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기의 곡선미와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세로형 흡을 적용했다.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감성을 녹입과 동시에 투명병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여성 빅모델이 아닌 새로만의 앰버서더 '새로구미' 캐릭터를 개발했으며, 대중 광고보다 애니메이션 바이럴 영상을 메인 콘텐츠로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MZ세대의 콘텐츠 주



새로, 새로 살구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2022년 9월, '제로슈거' 소주로 첫 선 부드러운 목넘김, 산뜻한 맛에 인기↑ 진짜 살구 과즙 더한 '새로 살구' 선택

고전적 방법 깨고 MZ에 집중한 마케팅 한국의 맛·현대 감성 녹인 제품 패키지 캐릭터 모델 '새로구미' 스토리 콘텐츠로

소비 채널인 디지털 PPL로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

새로는 한국의 전래동화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느낌의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출시 때부터 브랜드 앰버서더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에 배치해 기존 소주 제품들과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출시 초에 선보인 '소주 새로 탄생 스토리'를 담은 5분 정도 분량의 콘텐츠는 사람의 간(肝)을 탐했던 구미호가 '새로구미'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룹 '에이핑크' 소속의 가수 겸 배우 정은지가 매력적인 목소리와 연기로 '새로구미'를 표현했고, 작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배우 이도현을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해 '남자 새로구미'의 비주얼과 목소리를 연기하며 이미지를 전달했다.

올 4월말부터 선보인 '새로 살구' 콘텐츠는 배우 박지훈과 배우 김혜윤이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남자 구미호와 여자 인간의 천 여년 전 살구 빛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동영상 공개 50여일만에 유튜브 기준 약

1000만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10월 초에 새롭게 선보인 '새로구미런: 산 257'이란 이름의 콘텐츠는 지난 4월에 공개한 '새로 살구' 애니메이션의 후속편으로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자랑하며 높은 완성도를 뽐냈다. 두 편으로 구성된 이번 광고 시리즈는 공개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합산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 애니메이션 광고는 단순한 제품 광고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작년 9월 성수동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대구로 장소를 옮기며, 새로운 독창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며, 롯데칠성음료 강릉 공장에 브랜드 체험관을 리뉴얼 오픈하며 브랜드 히스토리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류시장을 대표하는 메이저 회사인 E&J 갤로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미국 전역의 주류 전문 판매점 약 1만 곳에 '새로'와 '순하리'를 입점시키며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시장 진출 1주년을 기념한 유명 클럽과의 콜라보 마케팅 및 게릴라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미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유럽에도 상륙했다. 새로 살구의 경우 과일 소주 수요가 높은 동남아와 중국, 홍콩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제로슈거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새로 살구, 새로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내달 2일 공정위 심사 요청 /사진 뉴스스
▲SSG, 나경민 전 롯데 코치 영입... "신진급 선수와 원활한 소통 기대"

▲프로농구 SK 양우섭, 내달 1일 KT와 흥경기서 은퇴식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체육, 올바른 방향으로"...원칙 강조



▲"영화와 탁구의 만남"...보람할렐루 야탁구단, '재능 기부' /사진 보람그룹
▲인천공항 '스마트 레이싱 파크' 착공...2026년 완공